

## 농림부문 국정과제 및 추진상황

### Major Reform Tasks and Its Progress in Agricultural Part

박 병 태\*  
Park, Byong-tae

#### 1. 머리말

정부는 '98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였다. 국정과제는 경제난국을 한시 바빠 극복하고, 국민중심으로 정부경영의 틀을 바꾸어 나가며 고난속에서도 21세기 경제강국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국민 정부의 시대적 사명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게 되어 국정전반에 걸쳐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전체 100대 국정과제 중 농림분야는 6개 과제로서 ▲ 복잡한 유통구조의 대폭 축소 ▲ 개방화시대 농업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 쌀 자급유지, 양곡유통은 시장중심으로 추진 ▲ 생활여건개선으로 가고 싶은 농촌 건설 ▲ 산림자원 육성으로 쾌적한 공기를 공급 ▲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인 형태로의 전환 등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국정과제에 대하여는 실천과제별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반기별로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기로 하였으며,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순위에 따라 '99년

예산부터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기획관리단'을 통하여 추가과제를 발굴 및 수정 보완하여 나가기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림분야의 국정과제 및 그 세부과제와 또한 농림분야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2. 농림부문 국정과제

##### 가. 국정과제 선정기준

정부는 농림부문 국정과제로 유통구조개선, 쌀자급 유지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정과제의 선정기준은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준비라는 국정이념을 토대로 건강한 국민 정신의 함양, 경쟁 자원의 촉진,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당장 시급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직 인수위 100대 과제,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 지시사항과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정과제는 어려운 현실과 고난속에서도 21

\* 농림부 농업공무원 교육원

세기의 경제강국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하는 국민의 정부의 시대적 사명에 따라 장미빛 청사진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제 중심으로, 추상적인 방향제시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수치중심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 중심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선정취지에 맞추어 앞으로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6개 부문에 걸쳐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9개 중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실천사항으로 64개 부문에 걸쳐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 나. 농림부문 주요 국정과제

### 1) 복잡한 유통구조는 대폭 축소해야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생산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통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임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여 일반 소매상의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설치, 금융점포 직관코너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유통과정에서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새로 개장되기 시작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유통단계를 5~6 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해 나가겠으며, 기존 도매시장은 형식 경매, 불법점포 임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상장수수료 하역비 인하 등 유통비용 절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출하

자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규격농산물이 대량으로 출하되도록 지원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하여 물류비를 대폭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중인 '유통개혁위원회'에서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을 금년 6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2) 개방화 시대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WTO 체제하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농정의 국제화가 가속화 되어 농림업도 국제경쟁이 불가피하므로 기술, 경영, 수출 등에 중점을 둔 시장지향의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 우선 그 동안 제기된 농정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새 농정의 틀을 정립하고 효율성에 기초한 중장기 농촌발전 대책을 '98.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계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농업 농촌발전 대책을 확정하고, 또한 농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21세기 대비 농업 농촌 관련 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할 '농업 농촌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나) 또한 농업의 시장 지향성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 비농업 부문의 자본 기술 인력의 참여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화된 농업시설의 이전 규제를 완화하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차등보조와 인센티브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다)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 정보화를 확대하고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농림종합정보망 확충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경영의 정보화 추진 및 농업인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내실화 대책 수립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 운전자금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수출농업을 본격적으로 육성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품목별 수출전문 생산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수출업체와 생산농업인과의 계약생산체제를 활성화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및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수출에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에로 상담실을 운영 확대 및 내실화 하고, 농산물 수출업체에 원료농산물 구매자금지원 등 자금지원과 농산물 수출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판촉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시장감각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최신 무역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종합지원하고 법인경영체의 설립기준 및 자금지원 기준을 강화하며 가족농의 규모화, 전문화, 협동화를 촉진하여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바) 농정추진 조직을 농업인에 대한 봉사기능 중심으로 과감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검사소, 농업통계사무소의 지소 및 출장소를 광역화하고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 기능을 재정립한다.

농업협동조합 운영체제를 농업인의 관점과 경영효율화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인, 협동조합,

정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사) 농촌투융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농업지원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촌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하여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저리융자로 전환하고,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현재 사업별 품목별로 개별 지원하던 것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에 적량을 종합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3) 쌀자금유지, 양곡유통은 시장중심으로

가) 농림부는 점차 불안해지는 국제식량 수급 여건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주곡의 안정적 공급 기반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쌀 자금기반 확보를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004년까지 논면적 110만ha를 확보하기 위해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산지의 다목적의 활용을 유도하며,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95~2004) 및 경지정리사업 효율적 추진 등 쌀 생산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한, 쌀농업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농가영농 규모화사업을 내실화하고, 다수확 고품질품종을 지속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나) 양곡관리제도는 WTO 협정에 따라 매년 축소되고 있는 현행 추곡약정수매 중 농협차액 수매방식을 용자수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하였다.

용자수매는 정부중심이 아니라 최근 쌀주산지에서 활발한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RPC 등 민간업체가 수행하며, 쌀값 계절진폭의 충분한 보장으로 농업인들이 쌀값 불안을 덜어주고 RPC등 용자업체도 안정적인 원료확보와 브랜드쌀 판매가 촉진되어 민간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 도와 국립농산물검사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쌀 보리 등 정부양곡 관리를 국립농산물검사소로 일원화하여 인력 예산절감은 물론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농업의 비교역적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 강조됨에 따라 '99년부터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금년 하반기중으로 관련 법령정비를 포함한 세부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 한편 정부는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UR 농산물 협상결과 평가와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차기농산물 협상대책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4) 생활여건 개선으로 가고 싶은 농촌을

가) 최근 시중금리 및 농자재 가격상승, 농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농업경영 및 생활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우선 합리적인 농어가 부채대책 강구를 위해 농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부채협의회의 합의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농어가 부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가의 어려움, IMF 경제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부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나) 농어촌에 공장 및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농지규제완화 등 시책을 추진하여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다) 또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정적 계획적 영농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 교육, 의료 등 복지측면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강화하여 돌아가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로 하였다.

#### 5) 산림환경육성으로 쾌적한 공기를

전 국토의 65%(약 645만ha)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이 베푸는 혜택은 다양하고 크므로 우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국내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림경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가) 먼저, 임업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육림사업을 전개하여 치산녹화기에 심은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국내 자원만으로는 목재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 안정적인 산업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 조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산림경영의 기반이 되는 임도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시공하고 기존 임도시설의 유지보수 강화 등 내실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주소득증대를 위해 밤, 표고, 야생화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국산재의 신수요를 창출하고 간벌재 활용을 촉진토록 할 것이다.

나) 또한, 산림의 환경 공익기능 증진 및 고유생물자원 보전에도 중점을 두어 산림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생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야생동물관찰원을 조성하고 수렵장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야생조수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백두대간을 축으로 천연보호림 지정을 확대하고, 광릉수목원을 국립수목원으로 설립하여 산림식물자원의 보전 관리의 중심 센터로 육성하며 지방수목원 확충으로 고유 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토록 할 계획이다.

#### 6)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 형태로

가) 우선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영농오염원 경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IPM), 작물양분 종합관리(INM) 기술확산을 위한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99년 : 16개소) 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 등으로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조사 및 수질개선사업 실시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나) 또한, 국내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비용 절감형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다) 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해 환경농산물 판매장 확충 등 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사용중인 환경농업 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민간토착 기술을 현대화 하는 등 환경농업 자재개발을 추진키로 하였다.

### 3.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가.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추진

중앙행정조직 축소 계획에 따라 농림조직 중 1실, 3국, 8과를 이미 폐지하고 정원 123명을 감축하였으며, '98. 7월말까지 추가적인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 인력 1,040명(11.7%)을 감축하게 될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물류센터, 화훼공판장, 직판장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기능은 금년내에 농협 또는 민간단체에 모두 매각하고 생산자 단체나 민간이 할 수 없

는 농수산물의 국영무역, 수매비축·방출 등 물가안정사업과 수출정보·시장개척 등 공익적 업무만 전담시킬 계획이며 이와 함께 금년 중 이미 감축한 120명의 인력외에 추가로 101명을 감축하여 전체인원을 '97년말 751명에서 '98년말에는 530명 수준(△30%)으로 줄일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와 긴밀히 협조,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사업중 유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신용사업은 국제경쟁력 확보 및 대농민 지원체제로 개편하며 지역단위 협동조합간 합병방안 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개혁대책을 금년 7월까지 수립, 8월부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 '농·소·정'의 긴밀한 협력하에 '열린농정' 추진

WTO/IMF 체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農·消·政의 긴밀한 협력하에 '열린농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의 제의로 구성된 농정개혁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3개 위원회에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고, 농업인·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등 참여를 확대하여 '참여농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주말에 장관이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 및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이동장관실'을 현재까지 총 20회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건의한 149건의 사항 중 55건을 즉석 또는 일주일 이내에 해결하고 51건을 추진 중에 있다(43건은 불가통보).

#### 다. 농림분야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과거 관행의 규제는 모두 개혁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농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이미 37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총 715건의 농림분야 규제중 44%인 313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하고 그 중 54%인 169건의 규제를 금년내에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이다. 잔존규제는 주로 농산물 안정성과 위생·환경·소비자보호 관련사항, 그리고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사항들이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총 규제의 절반이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라. 정책자금 유용 등 불법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조치

지난 정권하에서 단기간내에 집중지원된 농촌투융자 사업 중 일부가 농가의 경험 미숙과 업자농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비리·부실이 발생되었다. 6. 23~27일간 농림부와 도가 농림사업비 집행실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마. '99년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시범 실시

농촌 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이 과다한 사업의 보조율 인하, 시설투자 예산의 축소 등 ‘투융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9년 농림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였다. 이에따라 19개 농업인 보조지원사업은 2001년까지 보조를 용자로 전환하게 되며 첨단농업 시설과 축사현대화, 경지정리 등 시설투자 예산은 대폭 삭감 편성하여 예산을 요구하였고 농지개량조합의 개혁유도를 위해 '99년 운영비 지원예산을 12% 삭감하여 편성 요구하였다.

농촌 투융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농·축협이 농업인의 사업계획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9년에는 우선 원예·축산분야 중에서 200억원 규모를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완·발전시켜 2001년에는 종합자금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 바. 농가부채 긴급대책 강구

최근 농업자금의 상환연기와 각종 농업자금 금리의 '97년 수준 유지 등 다각적인 부담경감 대책으로 농업인에게 총 5,437억원 상당의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농가경제 침체로 농업인의 부채경감 요구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이미 연기된 정책자금의 상환이 도래하는 10~12월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가의 실태를 파악후 자금상환 추가연기 등 긴급대책을 오는 7~8월중 마련하고, '99년에 1조원 규모의 ‘부채경감 경영자금’을 마련, 상호금융 등 고리자금을 대체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부채협의회’의 농가부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부채대책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할 계획이다.

#### 사. 쇠고기 및 우유수급 대책

IMF 사태로 인한 소비감소로 소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수수매와 시가수매 등 쇠고기 생산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납쇠고기의 50% 한우 대체를 확대하고 한우고기 수출확대를 모색중에

있다. 또한, 우유생산 감축을 위해 젖소자율도태(30천두)를 추진중이며,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유업체의 평균소매 가격을 5.7%~6.7% 인하하였다. 이와 함께 분유와 젖소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민간단체(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와 교섭·추진중에 있다.

#### 아.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유통구조 개혁

6월 18일 현재 총 17,000여회의 직거래를 실시하여 1조 5,641억원어치를 판매함으로써 직거래 비중이 지난해 5%에서 11%로 높아졌고 총 3,910억원의 유통마진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이와함께 인근 소매상에서 가격을 10~15% 인하하고, 백화점 등에서는 산지 직구입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등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도 상장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1%(5%→4%) 인하키로 하였으며,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금년말까지 상장수수료를 1% 인하할 계획으로 직거래가 전체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 자. 친환경농업의 육성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하고 국토의 자연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IPM)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INM) 제도구축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농업 육성법 시행령도 금년 11월까지 제정하여 범시행('98. 12. 14)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농업 농가의 소득안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되, 우선 '99년에는 환경규제 지역내의 유기농 및 저투입 농법(LISA) 농가에 대해 실시키로하고 '99년 소요예산(83억원) 확보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아울러 내년도에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전국적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2000년 이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차.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

'98. 5월 현재 농가소득 품목의 수출액은 2억불로서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고, 농산물 수출액은 626백만불(석재 제외)로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고 수출전망이 밝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의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추진하고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주문정보 서비스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척 업무를 총괄 담당할 수 있도록 유통공사 체제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 카. 농업정보화 촉진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정보망을 이용한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이다스동아' 전자쇼핑몰 개설을 지원하고 인터넷에 농림부 홈페이지에 '농산물 전자 직거래 마당'을 개장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산물 직거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 정보화를 총괄 선도하고 확산시키는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기능보강 및 특수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입법추진중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설립근거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